

[바둑]

‘이창호 바둑판’ 360만원 최고가 낙찰

국내에서 처음 열린 바둑명품 경매에는 어떤 물건이 나왔을까? 1억 원대 바둑판과 명사들의 흔이 담긴 바둑 용품이 대거 출품된 경매 행사가 열려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일 서울 용인동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지지옥션 바둑명품 경매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0년 제4회 응창기배 준결승전에서 이창호 9단과 위린 9단이 사용한 바둑판이 360만원에 낙찰됐다. 또 바둑 프로그시사들의 서명이 담긴 바둑판은 21만원~25만원에 팔렸고, 지지옥션 대국사 서명 바둑통 및 바둑알은 21만원~31만원에 모

두 낙찰됐다. 반면 시작가 1억2천만원으로 최고 금액에 나온 현목 목상감 바둑판 ‘미죽’, ‘난우’(7천만원), ‘기쁜만남’(7천500만원), ‘새천년’(9천만원), ‘새벽’(5천500만원) 등 고액 바둑판은 낙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현목 목상감 바둑판은 목공예가인 김종환씨의 작품으로 현목에 목상감 기법의 전통 고유 디자인을 넣어 만들었다. 또 조훈현 9단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겐사쿠 9단 친필 서예작인 ‘기(氣)(시작가 500만원), 한국 현대바둑 60주년 기념행사를 기념하여 후지사와 슈코 9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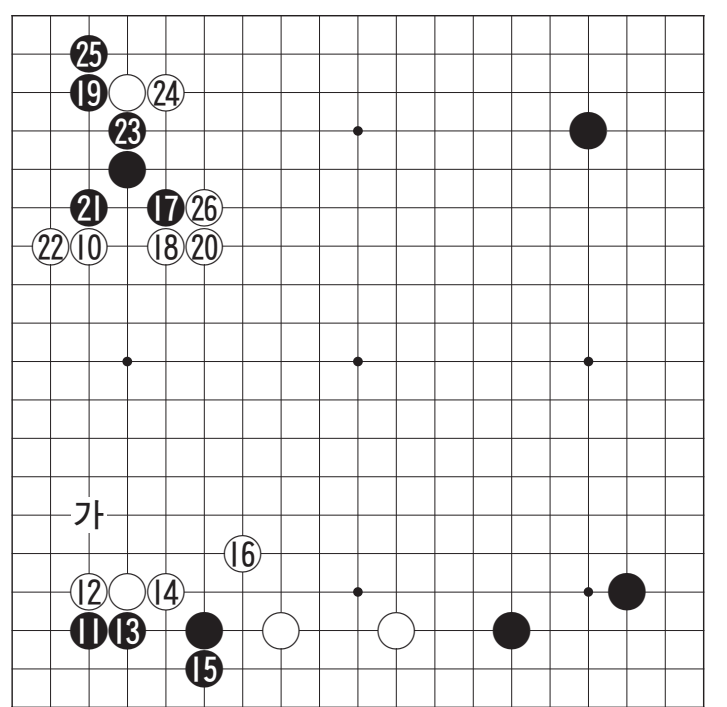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바둑 경매에 출품된 1억2천만원짜리 현목 목상감 바둑판 ‘미죽’

이 쓴 친필 서예작 ‘기(氣)(시작가 300만원)’ 등도 유찰됐다. 이번 경매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바둑 꿈

한국기원 첫 바둑명품 경매 역대 바둑판 ‘미죽’은 유찰 경매 수익금 꿈나무 육성에

백전노장의 임기응변 개인전 준결승 2국 2보 (10~26)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19로 붙여갔는데 이 수로는 일단 ‘참고도’의 흑 1로 갖다가는 것이 제일감으로 백 2면 흑 23까지가 예전에 수행했던 정석이다. 방재혁 5단은 시합경험, 특히 이런 중요한 승부경험이 적은데 비해 김영수 5단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이다.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방재혁 5단이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김영수 5단은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주특기인 세력을 취하며 백 26으로 꼭꼭 눌러 막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임직부터 흑이 고전의 양상인데 과연 능면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좌변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재혁 5단이 좌상귀를 외면하고 흑 11로 3-삼에 쳐들어간 것은 다소 의외였다. 이렇게 못들 바는 없으나 이곳은 좌상귀 쪽의 상황에 따라 ‘가’로 양질점할 수도 있었던 곳이다. 좌하귀를 결정하고 나서 흑 17로 두니 이제는 김영수 5단도 좌변을 키우기 위해 흑 18로 붙여 간다. 노련한 백전노장다운 임기응변이다. 방재혁 5단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지 이번에는 예상외로 흑

‘올림픽 감동’ 우리가 잇는다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대회 10월3일 베이징서 화려한 개막

베이징 올림픽 감동이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대회(WMSG)로 이어진다. 올림픽 폐막으로 그동안 선수 발표를 미뤄왔던 중국이 선수단 구성을 끝마치는 등 세계 최초로 열리는 마인드스포츠대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10월3일~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이 대회는 바둑, 체스, 브리지, 체커, 중국장기 등 5개 종목에 총 35개의 금메달이 걸

렸다. 바둑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선수단 구성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최근 선수단 20명을 발표했다. 중국기원은 상위 랭킹 4명인 구리 9단, 장하오 9단, 씨예허 7단, 쑹지에 7단에게 자동 출전권이 쏠리며 올해 전적이 가장 뛰어난 류싱 7단도 선수단에 포함시켰다. 장하오 9단, 구리 9단 등이 각각 단체전과 개인전의 핵심으로 출전하고 박문오 5단은 와일드카드를 배정받아 자동 출전권을 확보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노사초배 아마바둑대회’ 목포 출신 홍석의씨 우승

‘천재 국수’ 사초(史楚) 노석영 선생을 기리기 위한 ‘노사초배 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사초)에서 목포 출신 홍석의(경기도 3학년)씨가 우승했다. 지난 24일 함양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 아마추어 바둑 고수 460여명이 참가해 기력을 겨뤘다. 아마 최강부를 비롯해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16명씩 모두 128명의 입상자를 가렸다. 아마 최강부에서는 홍석의씨가 우승했다. 홍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 번째 전국규모 아마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상금 500만원과 함께 공인 6단에서 7단으로 승단하는 영예도 안았다. 홍씨는 순수 독학으로 바둑을 배워 프로급 실력을 쌓아 노기를 끝냈다. 이 부문 준우승은 서정인(23·서울 구로구)씨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장에서는 유창혁 9단, 문병근 8단, 김찬우·박성수 3단 등 프로그시사들이 일반 팬들과 지도다툼기를 선보였다. 한편 노석영 선생의 사적비도 세워졌다. 경남

한·중·일 반상 삼국지

내달 2일부터 삼성화재배 본선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본선 경기가 9월2일 대전시 덕명동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개막한다. 본선 32강에는 본선 시드 16명과 통합예선 통과자 16명이 출전해 ‘별들의 전쟁’을 펼친다. 이 세돌, 박영훈, 구리, 황이중은 전기 대회 4강 진출자 시드를 받았고 이창호, 조훈현, 유창혁, 장하오는 삼성화재배 통합 랭킹시드를 차지했다. 또 목진석, 조한승, 박정상, 리지, 허우루이양, 야마시타 게이코, 다카오 신지, 고야야시 고이치 등도 국가시드와 와일드카드를 받았다. 지난 2일 막을 내린 삼성화재배 통합예선을 통해 총 16명도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국가별 참가인원은 주최국 한국이 통합예선 통과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출전하고, 통합예선에서 10명의 선수를 본선에 올린 중국이 본선 시드 5명을 포함해 15명으로 최다 인원을 출전시켰다. 반면 통합예선에서 전원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일본은 국가시드 2명, 와일드카드 1명 등 3명이 출전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회는 예선통과자 16명이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시드조 16명 가운데 1차전을 겨룰 기사를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승 상금은 2억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바둑 전문 수련원 ‘킹스바둑’ 문 열어

강원도 횡성군에 자리잡은 바둑전문 수련원 킹스바둑이 30일 문을 열었다. 치악산 자락을 휘감아도는 주천강 인근에 위치한 킹스바둑은 바둑팬들이 편하게 쉬면서 기력도 향상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여명이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고, 바둑 강좌를 위한 대강당, 체육시설, 매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킹스바둑은 어린이들을 위한 바둑캠프와 바둑체험학습, 동호인들의 바둑월례모임과 각종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문의 02-454-3114. /오광복기자 kroh@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 CON' (Home Con Real Estate) featuring a real estate agent and listing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당부동산' (Geum-dang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